

목양칼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어제, 선교바자회 치르시느라 많이 힘드셨지요?

몸살 나지 않으셨나요? 큰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바자회가 있었다는 말은 충분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 더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의 기도와 생각과 준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도 싶을 것입니다.

“굳이 고생하면서 시간 들여 바자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바자회의 결산에 걸맞는 금액을 선교기금으로 모으면 안 되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어 그 안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때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고

책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산적으로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선교 바자의 최종목적도 몇만 불이라는 결산이 아닙니다.

물론 그 소중한 결산이 이번 단기 선교 각처에서 아름답게 쓰일 터이지만

우리의 선교 바자는 돈으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선교 소명에 대한 각자의 응답이며,

우리 공동체에 대한 결속의 다짐입니다.

올해도 돈으로 결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일구신 우리 교우들.

이런 멋진 분들과 같이 한 주님, 한 교회를 섬기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4340, 4344, 4347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소유영/유치부 (917)318-7030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팽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규/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한국어부 (646) 789-1118	창다/중국어부 (929)204-6868
정진규/관리 (718)939-000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직원	신성근/방송
찬양대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경희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김보라
	반주 / 윤민상
	반주 / 윤현주
	Shen de Guia/QPEM
	반주 / 김정윤 임세현



주후 2017년 6월 4일
제 43-23호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7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황인섭 장로
		2부 / 황주현 장로
		3부 / 장봉석 장로
		4부 / 고국환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에베소서 6:21-24	사회자
찬양 CHORUS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사랑해요	호산나 찬양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시온 찬양대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14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620/2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에스터 선교회 헌신 예배 / 월례회

오후 3:30 (6/4/17)	사회: 임세현 집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손계인 집사
성경봉독	이명남 집사

에스터 4:12-17

찬양	찬양대
말씀	차평화 전도사

이때를 위함

헌신찬양	에스터 선교회
헌금	280
헌금기도	박승희 집사
광고	최경민 집사
중, 단기선교사파송	김성국 목사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찬송	502
축도	김성국 목사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Genesis 5:1-3	
Prayer	Dn, Jay Youn
Sermon	Rev. Peter D. Kim

“Seeing One Another as God Sees Us”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брат Зарина Гулямова
к Римлянам(Ro) 13:12-14	

Молитва	брат Фирдаус Обидов
Проповедь	Владимир Сон
Облекитесь в Господа	

수요 기도 예배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

오후 8:00 (6/7/17)	사회: 채영주 집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정기영 집사
성경봉독	정해성 집사

사도행전 3:1-10

찬양	찬양대
말씀	배인구 전도사

변화된 마음과 눈으로

헌신찬양	베드로 선교회
헌금	438
헌금기도	오성태 집사
광고	안진우 집사
찬송	288
축도	김성국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18:15-20	
证道	陈玉捷传道
教会的权柄	

새가족 환영회

예수의 유일성

아가페 400호 기념 백일장

시와 수필, 성화, 카톡 사진. 마감: 6/11(주)

2017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주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강사: 김승욱 목사. 일시: 7/2(주)-4(화)

교회소식

6월 성령의 달 - 성령의 불길 타고르케 하소서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6/4(주) 에스터 선교회 헌신 예배 / 월례회	6/5(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28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6/7(수)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 / 지도원 성경공부	6/8(목)-15(목)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6/16(금) 구역예배	6/18(주) 글로리아싱어즈 음악회
6/21(수) 제 54기 전도폭발 수료예배	6/25(주) 교회학교 졸업예배

알림

- 에스터 선교회 헌신 예배로 저녁예배를 오후 3시 30분에 드립니다. 예배 후에 월례회가 있습니다.
- 선교 바자회를 은혜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부서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6/8(목)-6/15(목).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 함미희 정길표 최원일 설정애 송정향 정민영. 캄보디아 중기선교: 허남준 (6/11-8/3)
- 중보기도요청 라마단(이슬람공식기간 5/27-6/25)기간 동안 러시아어권 회중들이 라마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슬림들이 회심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랑예찬이 주관하는 어린이 찬양집회 "Jesus is my Superhero Part III"가 6/23(금) 오후 8시에 본당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다민족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2017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안내 1) 주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2) 일시: 7/2(주)-4(화) 3) 강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담임) 4) 장소:Hudson Valley Resort
- 아가페 400호(7월호) 기념 백일장 안내 * 대상 상품: 김치 냉장고 1) 행사주제: 시와 수필, 성화, 카톡 사진 2) 기간: 6/11(주)까지 3) 문의 및 접수: 소유영 전도사, 채영주 집사, 아가페 편집부(kapcq2017agape@gmail.com)
- 2017 여름학교 안내 1) 기간: 7/5(수) - 8/11(금) 2) 대상: Kindergarten - 12학년(SAT Class) 3) 문의: 여름학교 사무실(210호) (718)886-4646
- 올 해 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은 각 교구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1층 엘리베이터 옆 화장실이 어제 완공되어, 완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 6/10(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4교구 (다음주: 장로부부)
- 가족기념 장학기금 김덕중 집사, 김동순 집사, 이정심 권사, 이효성 집사, 전소연 교우

새가족

오주연 (청년선교 3Y2), 목예린 (청년대학 2Y1)

교우소식

- 출 산 최애령 집사(최정근 집사 2F16)께서 5/31(수)에 득남(최신일) 하였습니다.
- 결 혼 정성호 장로(정영숙 권사 3WCT)의 차남 훈제군이 6/3(토) 발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졸 업 최정환 전도사, 이숙규 집사, 이소영 전도사: 6/5(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 연 주 김기호 장로 가족 연주회(다니엘의 음악 이야기)가 6/4(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주회 후에 장로님 가족이 식사를 제공합니다.
- 입 원 유숙자 권사 (1F9)께서 골절로 후러싱 병원 308호에 입원하였습니다.

금식기도사

월 / 계획자 황금자 손요한
수 / 정경미 오영순 김명순 정기영오영순
금 / 최성권 최봉순 조목한 박영권 박식성 설희숙

주 / 김재일 김효순 김현철 이정훈 민미숙 이경미 정성숙
화 / 계획자 황금자 손요한
목 / 정경미 오영순정기영 차문희오영순
토 / 최성권 최봉순 조목한 박영권 박식성 설희숙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99	러시아어 예배	80	영어부	40	중등부	47
2부 예배	338	청년 선교부	83	유아부	33	고등부	57
3부 예배	338	주일 저녁 예배	360	유치부	42	청년 대학부	38
4부 예배	177	새벽 예배	998	중국어 교육부	15	교회 학교 예배	448
영어 예배	149	수요 기도 예배	224	유년부	101	주일 낮 장년 예배	1745
중국어 예배	281	새가족 환영회	-	초등부	75	주일 낮 총계	2193

6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임 정 장로

헌신기도(다음주)	이희영 장로	박영권 장로	허경화 장로	김용생 장로
책임권사	이희정 권사	박순자 권사	허영미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현	임승룡 이숙규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선의 박새롬 정형진 조희주 권동은 조한결 김서희
현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이숙규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서희 박새롬 조희주 권동은 신예지 박재상 조한결 정형진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리아 바울 주일식사: 디모테/에스터 (다음주: 뵈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퀀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소요리 문답

문 99)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383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2장 24-30절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바울을 죽이려 하자 사태에 위기감을 느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채찍질로 심문하려고 가죽 줄로 바울을 맷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며, 로마 시민을 죄도 안 따지고 채찍질할 수 있냐고 묻자 천부장과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물러가며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 군대까지 사용하여 보호하셨습니다. 로마 군대의 위협 앞에서는 그의 신분을 사용해서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하나씩 이루십니다. 우리 가정 또한 신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384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3장 1-11절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6)고 말하며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의 말로 인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 분위기가 더 과격해졌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긴 하루를 보낸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서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11)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서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390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3장 12-30절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오묘합니다.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한 자가 사십여 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공회에 나올 때 숨어있다가 기회를 봐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계획을 듣고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은 이 청년을 천부장과 만나게 했습니다. 천부장은 이야기를 듣고는 이 바울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것과 자신이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밤중에 바로 병사들을 준비시키고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11)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이뤄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총독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정확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397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3장 31-35절

바울이 총독을 만나 헤롯의 궁에 갔습니다. 그 과정이 긴장되고 험난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끌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이의 소문을 넘어 총독 벨릭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으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은혜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585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4장 1-9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사렛 이단” (5)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권력에 아부하고 빌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3)라는 고백은 참 들어주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말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정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밝히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406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4장 10-27절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총독은 바울을 지켜주라 하였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3). 이 뿐만이 아니라 총독이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24).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 은혜가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